

### 3 실학자들이 꿈꾼 사회는?

#### 현실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실용적인 학문

##### ❖ 비판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농업과 상업의 발달, 서양 문물의 전래……. 조선 후기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이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커지고, 양반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나타났지요. 그러나 성리학은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철학적인 이론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자고로 학문은 현실에 쓸모가 있어야지.’

이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들은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들이 연구한 학문을 실학이라고 해요.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하여 학문을 탐구하는 태도

#### 농업 중심의 개혁

실학자들 중에는 유형원을 비롯해 농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농촌은 새로운 농사법이 퍼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하지만 일부 농민들만 부자가 되었을 뿐 많은 농민들은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가난한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죠. 실학자들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땅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 호기심 뽀뽀**

실학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의 성리학은 우주의 질서, 인간의 도리 등을 중요시 한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학문은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지요. 그러자 일부 학자들이 현실에 쓸모 있는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실학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랍니다.



## 정약용과 거중기

정약용은 정조가 다스리던 시기의 대표적인 학자였어요. 성리학뿐 아니라 건축, 수학, 지리, 과학 등 전 분야에 관심을 두었죠. 그는 정조의 개혁 정치를 도왔어요. 수원 화성을 설계하고, 무거운 돌을 들어올리기 위해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 화성 건설에 이용하기도 했어요.

정약용의 정치적 활약은 정조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렸어요. 정조가 죽자 정약용을 질투한 사람들은 그를 모함하였고, 결국 전라도로 유배를 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정약용은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보게 되었지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하여 50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현실 사회에 대한 개혁안을 담은 《경세유표》, 지방 관리의 마음가짐을 담은 《목민심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다산초당: 정약용이 전라도 강진에 유배갔을 때 머물렀던 곳



거중기: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도구

### ◆모함

나쁜 피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함

### ◆유배

죄인을 귀양 보내던 일

## 상공업 중심의 개혁

실학자들 중에는 상공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어요. 조선은 농업을 중요시 여겼고, 상업과 수공업은 천하게 생각했어요. 일부 실학자들은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또한 이들은 청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북학론을 주장했어요.



박지원

청을 오랑캐라고 무시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은 배워야 한다. 수레를 이용하여 물건을 유통시키자.



박제가

청과 무역을 해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자. 화폐(돈)를 많이 만들어 물건을 사고파는 데 사용하게 해 상업을 발전시키자.